

-(-)ㄹ지어다

장엄한 명령 — 할지어다, ~하라

옛 한국어에서 온 엄숙한 명령 표현입니다. 경전, 선언문, 그리고 옛 목소리의 무게를 싣고 싶은 글에 남아 있습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-ㄹ지어다	기억하다 → 기억할지어다
받침으로 끝남	-을지어다	믿다 → 믿을지어다
ㄹ로 끝남	추가 없음	만들다 → 만들지어다
엄숙한 단언	-(-)ㄹ지니라	복이 있을지니라
듣는 대상	백성, 후손	그 자리의 한 사람이 아님
시제 불가	어간 그대로만	기억했을지어다는 틀림

■ 언제 쓰나요

결합은 기본 규칙을 따르며 ㄹ 어간은 짧은 형태를 씁니다: 만들다 → 만들지어다. 붙여 쓰며, 시제를 붙이지 않습니다.

이것은 서술이 아니라 명령이나 권고입니다: 이 일을 길이 기억할지어다. 듣는 대상은 보통 한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, 신도, 또는 후손입니다.

관련된 -(-)ㄹ지니라는 명령이 아니라 엄숙한 단언을 나타내며, 두 어미는 같은 글에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

현대 한국어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효과를 위해 씁니다 — 역사 소설, 고전 번역, 또는 반어적인 표현에서입니다.

■ 예문

- 1 후손들은 이 일을 길이 기억할지어다.
- 2 뜻을 세웠거든 흔들리지 말지어다.
- 3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다.
- 4 이 땅에 평화가 있을지어다.
- 5 손수 만들지어다, 그리하면 그 값을 알리라.
- 6 무릇 배우는 자는 스스로를 낮출지어다.

■ 비교

-(-)세요
일상적인 공손한 명령입니다. -(-)ㄹ지어다는 공손함이 한 단계 높은 것이 아니라, 현대 한국어 밖으로 한 걸음 나간 표현입니다.
기억하세요. (기억해 주세요) / 기억할지어다. (기억할지어다, 엄숙한 명령)

-도록 하다
도록 하다는 기관의 말투로 지시하고, -(-)ㄹ지어다는 예스러운 말투로 선포합니다.
기억하도록 하십시오. (격식 있는 지시) / 기억할지어다. (선포)

-(-)ㄹ지니라
짜를 이루는 어미입니다. 지어다는 명령하고, 지니라는 진리를 엄숙하게 선언합니다. 고전 문헌에서는 둘이 번갈아 나옵니다.
겸손할지어다. (겸손하라) / 겸손할지니라. (겸손해야 하느니라)

■ 주의

- ✗ 그때 기억했을지어다.
- 이 일을 길이 기억할지어다.
이 어미에는 시제가 붙지 않으며,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합니다.
- ✗ 손수 만들을지어다.
- 손수 만들지어다.
ㄹ로 끝나는 어간은 만들 거예요, 만들 뿐이다처럼 이미 ㄹ을 갖추고 있습니다.
- ✗ 부장님, 이 서류를 확인할지어다.
- 부장님, 이 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이 어미는 동료가 아니라 백성이나 후손을 향한 말입니다. 직장에서 쓰면 조롱처럼 읽힙니다.